

전쟁불뭉치를 들고 날뛰는 윤석열역적패당은 민족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

북침흥계를 가리우기 위한 《방어》타령

윤석열역적패당이 공화국을 겨냥한 대규모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이 끝나기 바쁘게 그 누구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 또다시 운운하면서 《2022 태극연습》을 벌여놓았다.

이것은 공화국의 경고에 대한 전연도전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에 역행하는 용납 못할 범죄적당동이다.

역적패당이 벌여놓은 《태극연습》이 북침전쟁을 가상하여 벌이는 대격적이고 침략적인 군사적방위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남조선호전파들이 《합륙강연습》이라는 극히 도발

적인 명칭으로 친구급전쟁연습을 벌여오다가 그 호전성으로 하여 내외의 규탄배격을 받고 《태극》으로 명칭을 바꾸어 훈련을 강행하고 있는것을 놓고서도 그것을 잘 알 수 있다.

지금 역적패당은 저들이 벌여놓은 이번 《태극연습》의 침략적정체를 가리우기 위해 《년례적》으로 시행하는 《방어적성격》연습이라느니, 병력과 장비의 동원 및 기동훈련이 없이 지휘소에서 하는 훈련이었다느니 하고 떠들고있다.

그러나 전쟁연습의 목적과 성격이 침략적이고 대격적인 진대 밖에서 하든 안에서 하든 그것이 어떻게 《방어적

훈련》으로 될수 있고 그 도발적기도가 달라질수 있겠는가 하는것이다.

역적패당은 《2022 태극연습》을 하기 전에 미국과 련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을 강행하면서도 《년례적, 방어적》이라고 광고하였다. 하지만 이 공중전쟁연습이 역대 최대규모의 북침전쟁시연회, 핵전쟁에비연습이라느니 어지없이 날뛰는 드러났다. 북침전쟁각본인 《작전계획-5015》에 따라 벌리는 《태극연습》도 조금도 다르지않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층은 《태극연습》과 관련하여 《방어적》이라는 주장은 허구이며 그것을 명분으로 내

세우는것은 구차하다. 《태극연습》을 강행하는 리유는 《대북자극용》이다. 전쟁연습은 결코 평화를 선물하지 않는다. 정세를 격화시키는 《2022 태극연습》을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윤석열역적패당이 미국과 야합하여 강행하는 전쟁연습들은 어느것이나 다 공화국을 《주적》으로 삼고 벌리는 북침전쟁연습, 임의의 순간에 실천으로 넘어갈수 있는 북침에비전쟁이라는것이 내외의 한결같은 평이다.

미국을 등에 업고 한사코 북침전쟁의 불을 지르려는것이 윤석열역적패당의 흉심

이다.

하지만 그것은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분별을 잃고 날뛰는 대결미치광이들, 반공화국대결에 환장하여 제국을졸도 모르고 설치는 일간이들의 어리석은 만용에 불과하다.

공화국은 이미 윤석열 《정권》과 군부강패들이 공화국을 상대로 무모한 작태를 이어간다면 사상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라는것을 선언하였다.

역적패당은 저들의 북침전쟁광란이 가져올 파멸적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간 대규모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에 대응한 조선인민군의 초강경군사작전에 걸친 윤석열역적패당이 《대북보복무력시위》라는것을 벌여놓았다가 망신만 당하였다.

지난 11월 2일 윤석열역적패당은 전투기들을 동원하여 공중대시상미사일과 공중대지상정밀유도폭탄을 조선동해의 해상분계선 북쪽의 공해상에 발사하는 망동을 부리었다. 그리고는 어용언론들을 동원해 《정밀 타격할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과시했다》고 자랑하였다.

그런데 그마저도 망신거리로 되었으니 입만 벌리면 북에 대한 《대응능력과 의지를 보여주었다》, 《막강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객기를 부리던 윤석열역적패당이 참관하게 되었다.

남조선언론들이 《총체적난국상에 처한군의 대비태세》, 《구명단 대북보복무력시위》라며 윤석열역적패당을 야유조소하고있는것은 너무나 엉당하다.

역적패당이 떠드는 《압도적인 승리를 보장할수 있는 만단의 대응체계》의 실상은 바로 이런것이다.

스다버린 파멸과 같은 무기들과 미국의 대포발에 불과한 오합지졸의 무리들을 가지고 세계적인 군사강국과 엇서보려 하는 역적패당의 망동이야말로 삶은 소대거리도 양천대소할 회대의 정치판화이다. 차라리 《대비태세》니, 《무력시위》니 하며 날뛰지 말고 가만히 있었더라면 저들의 취약성을 가리울수라도 있었으련만...

배영일

선제공격을 노린 전쟁모의판

이번 협의회에서 이른바 《북핵사용세나라오》를 가정한 《확장적제수단운용연습》을 년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한것만 보아도 그것을 잘 알 수 있다.

《확장적제수단운용연습》은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이 그 누구의 《핵 및 미사일도발정후》에 대응한다는 명목 밑에 벌리는 공화국에 대한 핵탄핵타격시연회이다.

미국이 세계도처에서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해 그 무슨 《의혹》이니, 《징후》니 하는 구실을 붙여 침략행위를 일삼고있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은 조선반도에서도 그러한 상투적수법으로 그 누구의 《핵무기사용징후》를 구실로 핵전쟁도화선에 불을 달려 하고있다.

미국이 이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기도에 제 족을졸도 모르고 적극 편승해나서고있는 어리석은 대결미치광이들이 바로 윤석열역적패당이다.

미국과 윤석열역적패당의 무모한 무력사용기도로 하여 조선반도에서는 핵전쟁이 터질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사태가 조성되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이 미국상전과 함께 북침전쟁도발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면서 그 무슨 《비핵화》에 대해 입에 올리는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다.

더우기 조선반도에 핵전략폭격기와 핵항공모함들을 빈번히 들이밀고 핵전쟁행동에 광분하는 미국이 공화국의 자위적군사력을 결코 들먹이지 않겠는가 하는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있다.

오늘의 사태는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을 몰아오는 장본인, 평화를 파괴하는 도발자, 교란자도 다름아닌 미국과 윤석열역적패당이라는것

을 더욱 똑똑히 보여준다.

미국과 윤석열역적패당이 떠드는 《북핵위협》을 끝이 들을것은 맹목에 찌든 추종세력밖에 없으며 건전한 리성과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에 더는 속아넘어가지 않을것이다.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이 핵전쟁모의와 광란적인 군사적도발정후로 저들의 침략적이고 대격적인 목적을 거머쥔 달성해보려고 발악하고있지만 이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며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위력과 군사적강세에 겁을 먹

며칠전 미국의 워싱턴에서 제54차 남조선미국 《안보협의회》가 진행되었다.

여기에서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은 또다시 판에 박은 이른바 《북핵 및 미사일위협》에 대해 떠들면서 남조선미국련합훈련실시문제,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확장적제력실행제고, 《한미동맹》강화, 전사적전통적전환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이어 미국의 핵 및 재래식 전력, 미사일방어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력을 운용하여 남조선에 확장적제력을 제공한다는 공약의 재확인과 다음에 합동군사연습과 연계하여 대규모련합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기로 하는 등의 19개 조항으로 된 《공동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공화국에 대한 또 하나의 용납 못할 도발로서 첨예한 조선반도정세를 예측 불가능한 최악의 위험계선으로 더욱 바짝 몰아가는 무분별한 판타지이다.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이

《인플레이션폭발》을 내놓는바탕에 뒤쫓수만 얻어맞았다고 한다.

그런데도 짝소리 한마디 못하고 번어리 땀가슴 앓듯 하고있는 역적패당이다.

이렇듯 민생과 경제가 최악중의 최악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적패당은 공화국을 겨냥한 전쟁연습과 무기수입 등에는 천문학적액수의 혈세를 마구 탕진하고 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미친듯이 벌리는 북침전쟁연습, 친미친일사대매국정책일변도로 하여 조선반도에서의 긴장만 격화시키고있으니 남조선 각계층이 오히려 우리가 먼저 죽게 되었다, 불안해서 못살겠다, 살아가기가 이렇게 힘든것은 없었다고 절규하면서 윤석열역적패당에 대한 분노를 터뜨리고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최고요한의 상징인 가을. 그러나 이 가을에 남조선 각계층에게 차려진것은 날로 늘어만가는 채무액, 천정부지로 뛰여오르는 물가, 가중되는 리자부담, 시시각각 커만 가는 전쟁위험뿐이다. 빚더미에 짓눌리고 민생고에 예타되고 전쟁위기에 두근거리는 남조선민심의 허탈한 가슴속에 한숨만 가득 차있어 그들에게 있어서 가을은 누구라 할것없이 한숨만 내쉬는 《한숨가을》이 아니겠는가.

한숨이 쌓이고 쌓이면 원한이 되고 분노로 폭발하게 된다.

이제 민심의 울분과 원한이 맺힌 《한숨가을》은 역적패당의 파멸을 선고하는 분노의 피서리, 정의의 폭풍을 몰아올것이다.

박진홍

최근 일본이 남조선의 윤석열역적패당에 《소통》의 손을 내밀고있다.

현재 일본조야에서는 남조선과의 주요갈등현안들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쌍방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절실했다는 여론이 나돌고있다고 한다.

이런 속에 일본 자민당 부총재가 서울에 기여들여 쌍방관계개선에 대한 윤석열역적패당의 립장을 타진해보았고 일본수상 또한 남조선선일본 《의원련맹》합동총회에 보면 《축하연설문》을 통해 《긴밀한 의사소통》을 진행하겠다는 립장을 밝히었다.

선나라족속들이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운운하면서 《진밀한 소통》을 하자고 손을 내미는데 대해 윤석열역적패당이 환성을 올린것은 물론이다.

일본이 남조선과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운운하며 추파를 던지고있는것은 결코 저들이 지난날 우리 민족에

에로부터 가을은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이 한데 어울린 수확의 계절, 단풍의 계절로 불리워왔다.

이 계절에 사람들은 온한해 맘뭉쳐 가꾼 풍성한 곡식과 함께 1년로동의 보람과 긍지를 함께 거두어들이곤 하였다.

하지만 이해의 가을 남조선의 풍경은 한산하기만 하다.

심각한 경제위기로 인한 물가와 금리, 환율폭등이라는 《3중고》로 사람들에게 들춰진 극심한 생활난이 좀처럼 가시질줄 모르기때문이다.

현재 남조선가정들의 채무액은 1조 5,500억US\$이며 전체 가정의 70% 이상이 거액의 빚을 지고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농민들의 처지만 보아도 그러하다.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가을철과 하지만 농민들의 생활형편은 보기 딱할 정도이다.

쌀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20%이상 폭락하여 45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반면 비료값은 150%, 영농자재값은 38%, 로터리는 70%나 올라 농사지는 쌀을 다 팔아도 영농비를 보상할수 없는 지경이다.

당국자라는것들이 가격상승을 방지한다고 하면서 저축한 쌀을 수요이상으로 시장에 풀었기때문에 쌀가격이 폭락했다는것이다.

입만 벌리면 《경제》와 《민생회복》에 대해 떠들어대는 윤석열역적패당이 한다는것이 전부 이리하다.

역적패당이 미국상전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무려 400억US\$를 넘겨바치기로 했지만 상전이 《반도체지원법》,

《인플레이션폭발》을 내놓는바탕에 뒤쫓수만 얻어맞았다고 한다.

그런데도 짝소리 한마디 못하고 번어리 땀가슴 앓듯 하고있는 역적패당이다.

이렇듯 민생과 경제가 최악중의 최악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적패당은 공화국을 겨냥한 전쟁연습과 무기수입 등에는 천문학적액수의 혈세를 마구 탕진하고 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미친듯이 벌리는 북침전쟁연습, 친미친일사대매국정책일변도로 하여 조선반도에서의 긴장만 격화시키고있으니 남조선 각계층이 오히려 우리가 먼저 죽게 되었다, 불안해서 못살겠다, 살아가기가 이렇게 힘든것은 없었다고 절규하면서 윤석열역적패당에 대한 분노를 터뜨리고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최고요한의 상징인 가을. 그러나 이 가을에 남조선 각계층에게 차려진것은 날로 늘어만가는 채무액, 천정부지로 뛰여오르는 물가, 가중되는 리자부담, 시시각각 커만 가는 전쟁위험뿐이다. 빚더미에 짓눌리고 민생고에 예타되고 전쟁위기에 두근거리는 남조선민심의 허탈한 가슴속에 한숨만 가득 차있어 그들에게 있어서 가을은 누구라 할것없이 한숨만 내쉬는 《한숨가을》이 아니겠는가.

한숨이 쌓이고 쌓이면 원한이 되고 분노로 폭발하게 된다.

이제 민심의 울분과 원한이 맺힌 《한숨가을》은 역적패당의 파멸을 선고하는 분노의 피서리, 정의의 폭풍을 몰아올것이다.

박진홍

최근 일본이 남조선의 윤석열역적패당에 《소통》의 손을 내밀고있다.

현재 일본조야에서는 남조선과의 주요갈등현안들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쌍방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절실했다는 여론이 나돌고있다고 한다.

이런 속에 일본 자민당 부총재가 서울에 기여들여 쌍방관계개선에 대한 윤석열역적패당의 립장을 타진해보았고 일본수상 또한 남조선선일본 《의원련맹》합동총회에 보면 《축하연설문》을 통해 《긴밀한 의사소통》을 진행하겠다는 립장을 밝히었다.

선나라족속들이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운운하면서 《진밀한 소통》을 하자고 손을 내미는데 대해 윤석열역적패당이 환성을 올린것은 물론이다.

일본이 남조선과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운운하며 추파를 던지고있는것은 결코 저들이 지난날 우리 민족에

에로부터 가을은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이 한데 어울린 수확의 계절, 단풍의 계절로 불리워왔다.

이 계절에 사람들은 온한해 맘뭉쳐 가꾼 풍성한 곡식과 함께 1년로동의 보람과 긍지를 함께 거두어들이곤 하였다.

하지만 이해의 가을 남조선의 풍경은 한산하기만 하다.

심각한 경제위기로 인한 물가와 금리, 환율폭등이라는 《3중고》로 사람들에게 들춰진 극심한 생활난이 좀처럼 가시질줄 모르기때문이다.

현재 남조선가정들의 채무액은 1조 5,500억US\$이며 전체 가정의 70% 이상이 거액의 빚을 지고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농민들의 처지만 보아도 그러하다.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가을철과 하지만 농민들의 생활형편은 보기 딱할 정도이다.

쌀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20%이상 폭락하여 45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반면 비료값은 150%, 영농자재값은 38%, 로터리는 70%나 올라 농사지는 쌀을 다 팔아도 영농비를 보상할수 없는 지경이다.

당국자라는것들이 가격상승을 방지한다고 하면서 저축한 쌀을 수요이상으로 시장에 풀었기때문에 쌀가격이 폭락했다는것이다.

입만 벌리면 《경제》와 《민생회복》에 대해 떠들어대는 윤석열역적패당이 한다는것이 전부 이리하다.

역적패당이 미국상전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무려 400억US\$를 넘겨바치기로 했지만 상전이 《반도체지원법》,

《인플레이션폭발》을 내놓는바탕에 뒤쫓수만 얻어맞았다고 한다.

그런데도 짝소리 한마디 못하고 번어리 땀가슴 앓듯 하고있는 역적패당이다.

이렇듯 민생과 경제가 최악중의 최악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적패당은 공화국을 겨냥한 전쟁연습과 무기수입 등에는 천문학적액수의 혈세를 마구 탕진하고 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미친듯이 벌리는 북침전쟁연습, 친미친일사대매국정책일변도로 하여 조선반도에서의 긴장만 격화시키고있으니 남조선 각계층이 오히려 우리가 먼저 죽게 되었다, 불안해서 못살겠다, 살아가기가 이렇게 힘든것은 없었다고 절규하면서 윤석열역적패당에 대한 분노를 터뜨리고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최고요한의 상징인 가을. 그러나 이 가을에 남조선 각계층에게 차려진것은 날로 늘어만가는 채무액, 천정부지로 뛰여오르는 물가, 가중되는 리자부담, 시시각각 커만 가는 전쟁위험뿐이다. 빚더미에 짓눌리고 민생고에 예타되고 전쟁위기에 두근거리는 남조선민심의 허탈한 가슴속에 한숨만 가득 차있어 그들에게 있어서 가을은 누구라 할것없이 한숨만 내쉬는 《한숨가을》이 아니겠는가.

한숨이 쌓이고 쌓이면 원한이 되고 분노로 폭발하게 된다.

이제 민심의 울분과 원한이 맺힌 《한숨가을》은 역적패당의 파멸을 선고하는 분노의 피서리, 정의의 폭풍을 몰아올것이다.

박진홍

최근 일본이 남조선의 윤석열역적패당에 《소통》의 손을 내밀고있다.

현재 일본조야에서는 남조선과의 주요갈등현안들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쌍방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절실했다는 여론이 나돌고있다고 한다.

이런 속에 일본 자민당 부총재가 서울에 기여들여 쌍방관계개선에 대한 윤석열역적패당의 립장을 타진해보았고 일본수상 또한 남조선선일본 《의원련맹》합동총회에 보면 《축하연설문》을 통해 《긴밀한 의사소통》을 진행하겠다는 립장을 밝히었다.

선나라족속들이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운운하면서 《진밀한 소통》을 하자고 손을 내미는데 대해 윤석열역적패당이 환성을 올린것은 물론이다.

일본이 남조선과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운운하며 추파를 던지고있는것은 결코 저들이 지난날 우리 민족에

에로부터 가을은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이 한데 어울린 수확의 계절, 단풍의 계절로 불리워왔다.

이 계절에 사람들은 온한해 맘뭉쳐 가꾼 풍성한 곡식과 함께 1년로동의 보람과 긍지를 함께 거두어들이곤 하였다.

하지만 이해의 가을 남조선의 풍경은 한산하기만 하다.

심각한 경제위기로 인한 물가와 금리, 환율폭등이라는 《3중고》로 사람들에게 들춰진 극심한 생활난이 좀처럼 가시질줄 모르기때문이다.

현재 남조선가정들의 채무액은 1조 5,500억US\$이며 전체 가정의 70% 이상이 거액의 빚을 지고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농민들의 처지만 보아도 그러하다.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가을철과 하지만 농민들의 생활형편은 보기 딱할 정도이다.

쌀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20%이상 폭락하여 45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반면 비료값은 150%, 영농자재값은 38%, 로터리는 70%나 올라 농사지는 쌀을 다 팔아도 영농비를 보상할수 없는 지경이다.

당국자라는것들이 가격상승을 방지한다고 하면서 저축한 쌀을 수요이상으로 시장에 풀었기때문에 쌀가격이 폭락했다는것이다.

입만 벌리면 《경제》와 《민생회복》에 대해 떠들어대는 윤석열역적패당이 한다는것이 전부 이리하다.

역적패당이 미국상전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무려 400억US\$를 넘겨바치기로 했지만 상전이 《반도체지원법》,

본사기자 황금숙

본사기자 주광일

본사기자 김정혁

은자들의 숙명적인 불안감으로부터 출발한 단말마작발악에 불과하다.

미국과 윤석열역적패당이 세계적인 군사강국, 동방의 핵렬강인 공화국과 군사적으로 맞설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실수로 될것이다.

공화국은 이미 때없이 허세를 부리기 좋아하는 미국과 남조선의 책임있는자들이 저들의 체면관리가 중요한지, 안전이 더 중요한지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만일 미국과 윤석열역적패당이 공화국의 경고를 끝까지 외면하고 자멸적인 군사적대결의 길로 나온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명백하다.

본사기자 주광일

스스로 드러낸 패배상

남조선언론들이 《총체적난국상에 처한군의 대비태세》, 《구명단 대북보복무력시위》라며 윤석열역적패당을 야유조소하고있는것은 너무나 엉당하다.

역적패당이 떠드는 《압도적인 승리를 보장할수 있는 만단의 대응체계》의 실상은 바로 이런것이다.

스다버린 파멸과 같은 무기들과 미국의 대포발에 불과한 오합지졸의 무리들을 가지고 세계적인 군사강국과 엇서보려 하는 역적패당의 망동이야말로 삶은 소대거리도 양천대소할 회대의 정치판화이다. 차라리 《대비태세》니, 《무력시위》니 하며 날뛰지 말고 가만히 있었더라면 저들의 취약성을 가리울수라도 있었으련만...

배영일

《인플레이션폭발》을 내놓는바탕에 뒤쫓수만 얻어맞았다고 한다.

그런데도 짝소리 한마디 못하고 번어리 땀가슴 앓듯 하고있는 역적패당이다.

이렇듯 민생과 경제가 최악중의 최악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적패당은 공화국을 겨냥한 전쟁연습과 무기수입 등에는 천문학적액수의 혈세를 마구 탕진하고 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미친듯이 벌리는 북침전쟁연습, 친미친일사대매국정책일변도로 하여 조선반도에서의 긴장만 격화시키고있으니 남조선 각계층이 오히려 우리가 먼저 죽게 되었다, 불안해서 못살겠다, 살아가기가 이렇게 힘든것은 없었다고 절규하면서 윤석열역적패당에 대한 분노를 터뜨리고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최고요한의 상징인 가을. 그러나 이 가을에 남조선 각계층에게 차려진것은 날로 늘어만가는 채무액, 천정부지로 뛰여오르는 물가, 가중되는 리자부담, 시시각각 커만 가는 전쟁위험뿐이다. 빚더미에 짓눌리고 민생고에 예타되고 전쟁위기에 두근거리는 남조선민심의 허탈한 가슴속에 한숨만 가득 차있어 그들에게 있어서 가을은 누구라 할것없이 한숨만 내쉬는 《한숨가을》이 아니겠는가.

한숨이 쌓이고 쌓이면 원한이 되고 분노로 폭발하게 된다.

이제 민심의 울분과 원한이 맺힌 《한숨가을》은 역적패당의 파멸을 선고하는 분노의 피서리, 정의의 폭풍을 몰아올것이다.

박진홍

최근 일본이 남조선의 윤석열역적패당에 《소통》의 손을 내밀고있다.

현재 일본조야에서는 남조선과의 주요갈등현안들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쌍방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절실했다는 여론이 나돌고있다고 한다.

이런 속에 일본 자민당 부총재가 서울에 기여들여 쌍방관계개선에 대한 윤석열역적패당의 립장을 타진해보았고 일본수상 또한 남조선선일본 《의원련맹》합동총회에 보면 《축하연설문》을 통해 《긴밀한 의사소통》을 진행하겠다는 립장을 밝히었다.

선나라족속들이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운운하면서 《진밀한 소통》을 하자고 손을 내미는데 대해 윤석열역적패당이 환성을 올린것은 물론이다.

일본이 남조선과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운운하며 추파를 던지고있는것은 결코 저들이 지난날 우리 민족에

에로부터 가을은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이 한데 어울린 수확의 계절, 단풍의 계절로 불리워왔다.

이 계절에 사람들은 온한해 맘뭉쳐 가꾼 풍성한 곡식과 함께 1년로동의 보람과 긍지를 함께 거두어들이곤 하였다.

하지만 이해의 가을 남조선의 풍경은 한산하기만 하다.

심각한 경제위기로 인한 물가와 금리, 환율폭등이라는 《3중고》로 사람들에게 들춰진 극심한 생활난이 좀처럼 가시질줄 모르기때문이다.

현재 남조선가정들의 채무액은 1조 5,500억US\$이며 전체 가정의 70% 이상이 거액의 빚을 지고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농민들의 처지만 보아도 그러하다.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가을철과 하지만 농민들의 생활형편은 보기 딱할 정도이다.

쌀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20%이상 폭락하여 45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반면 비료값은 150%, 영농자재값은 38%, 로터리는 70%나 올라 농사지는 쌀을 다 팔아도 영농비를 보상할수 없는 지경이다.

당국자라는것들이 가격상승을 방지한다고 하면서 저축한 쌀을 수요이상으로 시장에 풀었기때문에 쌀가격이 폭락했다는것이다.

입만 벌리면 《경제》와 《민생회복》에 대해 떠들어대는 윤석열역적패당이 한다는것이 전부 이리하다.

역적패당이 미국상전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무려 400억US\$를 넘겨바치기로 했지만 상전이 《반도체지원법》,

《인플레이션폭발》을 내놓는바탕에 뒤쫓수만 얻어맞았다고 한다.

그런데도 짝소리 한마디 못하고 번어리 땀가슴 앓듯 하고있는 역적패당이다.

이렇듯 민생과 경제가 최악중의 최악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적패당은 공화국을 겨냥한 전쟁연습과 무기수입 등에는 천문학적액수의 혈세를 마구 탕진하고 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미친듯이 벌리는 북침전쟁연습, 친미친일사대매국정책일변도로 하여 조선반도에서의 긴장만 격화시키고있으니 남조선 각계층이 오히려 우리가 먼저 죽게 되었다, 불안해서 못살겠다, 살아가기가 이렇게 힘든것은 없었다고 절규하면서 윤석열역적패당에 대한 분노를 터뜨리고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최고요한의 상징인 가을. 그러나 이 가을에 남조선 각계층에게 차려진것은 날로 늘어만가는 채무액, 천정부지로 뛰여오르는 물가, 가중되는 리자부담, 시시각각 커만 가는 전쟁위험뿐이다. 빚더미에 짓눌리고 민생고에 예타되고 전쟁위기에 두근거리는 남조선민심의 허탈한 가슴속에 한숨만 가득 차있어 그들에게 있어서 가을은 누구라 할것없이 한숨만 내쉬는 《한숨가을》이 아니겠는가.

한숨이 쌓이고 쌓이면 원한이 되고 분노로 폭발하게 된다.

이제 민심의 울분과 원한이 맺힌 《한숨가을》은 역적패당의 파멸을 선고하는 분노의 피서리, 정의의 폭풍을 몰아올것이다.

박진홍

최근 일본이 남조선의 윤석열역적패당에 《소통》의 손을 내밀고있다.

현재 일본조야에서는 남조선과의 주요갈등현안들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쌍방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절실했다는 여론이 나돌고있다고 한다.

이런 속에 일본 자민당 부총재가 서울에 기여들여 쌍방관계개선에 대한 윤석열역적패당의 립장을 타진해보았고 일본수상 또한 남조선선일본 《의원련맹》합동총회에 보면 《축하연설문》을 통해 《긴밀한 의사소통》을 진행하겠다는 립장을 밝히었다.

선나라족속들이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운운하면서 《진밀한 소통》을 하자고 손을 내미는데 대해 윤석열역적패당이 환성을 올린것은 물론이다.

일본이 남조선과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운운하며 추파를 던지고있는것은 결코 저들이 지난날 우리 민족에

에로부터 가을은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이 한데 어울린 수확의 계절, 단풍의 계절로 불리워왔다.

이 계절에 사람들은 온한해 맘뭉쳐 가꾼 풍성한 곡식과 함께 1년로동의 보람과 긍지를 함께 거두어들이곤 하였다.

하지만 이해의 가을 남조선의 풍경은 한산하기만 하다.

심각한 경제위기로 인한 물가와 금리, 환율폭등이라는 《3중고》로 사람들에게 들춰진 극심한 생활난이 좀처럼 가시질줄 모르기때문이다.

현재 남조선가정들의 채무액은 1조 5,500억US\$이며 전체 가정의 70% 이상이 거액의 빚을 지고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농민들의 처지만 보아도 그러하다.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가을철과 하지만 농민들의 생활형편은 보기 딱할 정도이다.

쌀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20%이상 폭락하여 45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반면 비료값은 150%, 영농자재값은 38%, 로터리는 70%나 올라 농사지는 쌀을 다 팔아도 영농비를 보상할수 없는 지경이다.

당국자라는것들이 가격상승을 방지한다고 하면서 저축한 쌀을 수요이상으로 시장에 풀었기때문에 쌀가격이 폭락했다는것이다.

입만 벌리면 《경제》와 《민생회복》에 대해 떠들어대는 윤석열역적패당이 한다는것이 전부 이리하다.

역적패당이 미국상전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무려 400억US\$를 넘겨바치기로 했지만 상전이 《반도체지원법》,

《인플레이션폭발》을 내놓는바탕에 뒤쫓수만 얻어맞았다고 한다.

그런데도 짝소리 한마디 못하고 번어리 땀가슴 앓듯 하고있는 역적패당이다.

이렇듯 민생과 경제가 최악중의 최악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적패당은 공화국을 겨냥한 전쟁연습과 무기수입 등에는 천문학적액수의 혈세를 마구 탕진하고 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미친듯이 벌리는 북침전쟁연습, 친미친일사대매국정책일변도로 하여 조선반도에서의 긴장만 격화시키고있으니 남조선 각계층이 오히려 우리가 먼저 죽게 되었다, 불안해서 못살겠다, 살아가기가 이렇게 힘든것은 없었다고 절규하면서 윤석열역적패당에 대한 분노를 터뜨리고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최고요한의 상징인 가을. 그러나 이 가을에 남조선 각계층에게 차려진것은 날로 늘어만가는 채무액, 천정부지로 뛰여오르는 물가, 가중되는 리자부담, 시시각각 커만 가는 전쟁위험뿐이다. 빚더미에 짓눌리고 민생고에 예타되고 전쟁위기에 두근거리는 남조선민심의 허탈한 가슴속에 한숨만 가득 차있어 그들에게 있어서 가을은 누구라 할것없이 한숨만 내쉬는 《한숨가을》이 아니겠는가.

한숨이 쌓이고 쌓이면 원한이 되고 분노로 폭발하게 된다.

이제 민심의 울분과 원한이 맺힌 《한숨가을》은 역적패당의 파멸을 선고하는 분노의 피서리, 정의의 폭풍을 몰아올것이다.

박진홍

최근 일본이 남조선의 윤석열역적패당에 《소통》의 손을 내밀고있다.

현재 일본조야에서는 남조선과의 주요갈등현안들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쌍방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절실했다는 여론이 나돌고있다고 한다.

이런 속에 일본 자민당 부총재가 서울에 기여들여 쌍방관계개선에 대한 윤석열역적패당의 립장을 타진해보았고 일본수상 또한 남조선선일본 《의원련맹》합동총회에 보면 《축하연설문》을 통해 《긴밀한 의사소통》을 진행하겠다는 립장을 밝히었다.

선나라족속들이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운운하면서 《진밀한 소통》을 하자고 손을 내미는데 대해 윤석열역적패당이 환성을 올린것은 물론이다.

일본이 남조선과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운운하며 추파를 던지고있는것은 결코 저들이 지난날 우리 민족에

에로부터 가을은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이 한데 어울린 수확의 계절, 단풍의 계절로 불리워왔다.

이 계절에 사람들은 온한해 맘뭉쳐 가꾼 풍성한 곡식과 함께 1년로동의 보람과 긍지를 함께 거두어들이곤 하였다.

하지만 이해의 가을 남조선의 풍경은 한산하기만 하다.

심각한 경제위기로 인한 물가와 금리, 환율폭등이라는 《3중고》로 사람들에게 들춰진 극심한 생활난이 좀처럼 가시질줄 모르기때문이다.

현재 남조선가정들의 채무액은 1조 5,500억US\$이며 전체 가정의 70% 이상이 거액의 빚을 지고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농민들의 처지만 보아도 그러하다.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가을철과 하지만 농민들의 생활형편은 보기 딱할 정도이다.

쌀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20%이상 폭락하여 45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반면 비료값은 150%, 영농자재값은 38%, 로터리는 70%나 올라 농사지는 쌀을 다 팔아도 영농비를 보상할수 없는 지경이다.

당국자라는것들이 가격상승을 방지한다고 하면서 저축한 쌀을 수요이상으로 시장에 풀었기때문에 쌀가격이 폭락했다는것이다.

입만 벌리면 《경제》와 《민생회복》에 대해 떠들어대는 윤석열역적패당이 한다는것이 전부 이리하다.

역적패당이 미국상전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무려 400억US\$를 넘겨바치기로 했지만 상전이 《반도체지원법》,

본사기자 황금숙

본사기자 주광일

본사기자 김정혁

《미래지향》인가, 《과거지향》인가

저지른 죄악에 관 과거를 청산하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선나라족속들의 속심은 퍼비린나나는 저들의 과거죄악을 덮어버리는 한편 반공화국대결에 환장이 된 윤석열역적패당을 걸어주고 대조선적대시정체실현의 돌격대로 내세우

게 저지른 죄악에 관 과거를 청산하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선나라족속들의 속심은 퍼비린나나는 저들의 과거죄악을 덮어버리는 한편 반공화국대결에 환장이 된 윤석열역적패당을 걸어주고 대조선적대시정체실현의 돌격대로 내세우

게 저지른 죄악에 관 과거를 청산하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선나라족속들의 속심은 퍼비린나나는 저들의 과거죄악을 덮어버리는 한편 반공화국대결에 환장이 된 윤석열역적패당을 걸어주고 대조선적대시정체실현의 돌격대로 내세우

게 저지른 죄악에 관 과거를 청산하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선나라족속들의 속심은 퍼비린나나는 저들의 과거죄악을 덮어버리는 한편 반공화국대결에 환장이 된 윤석열역적패당을 걸어주고 대조선적대시정체실현의 돌격대로 내세우

저지른 죄악에 관 과거를 청산하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선나라족속들의 속심은 퍼비린나나는 저들의 과거죄악을 덮어버리는 한편 반공화국대결에 환장이 된 윤석열역적패당을 걸어주고 대조선적대시정체실현의 돌격대로 내세우

저지른 죄악에 관 과거를 청산하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선나라족속들의 속심은 퍼비린나나는 저들의 과거죄악을 덮어버리는 한편 반공화국대결에 환장이 된 윤석열역적패당을 걸어주고 대조선적대시정체실현의 돌격대로 내세우

저지른 죄악에 관 과거를 청산하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선나라족속들의 속심은 퍼비린나나는 저들의 과거죄악을 덮어버리는 한편 반공화국대결에 환장이 된 윤석열역적패당을 걸어주고 대조선적대시정체실현의 돌격대로 내세우

저지른 죄악에 관 과거를 청산하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선나라족속들의 속심은 퍼비린나나는 저들의 과거죄악을 덮어버리는 한편 반공화국대결에 환장이 된 윤석열역적패당을 걸어주고 대조선적대시정체실현의 돌격대로 내세우

본사기자 황금숙